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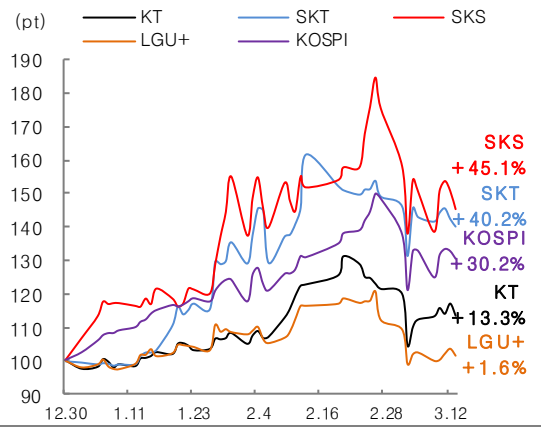
기업	25/12/30	03/06	03/13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76,500	75,000	▲ 21,500	▲ 40.2%	▼ 1,500	▼ 2.0%	3,320	4.4	
SK스퀘어 (402340)	368,000	553,000	534,000	▲ 166,000	▲ 45.1%	▼ 19,000	▼ 3.4%			
KT (030200)	52,600	59,000	59,600	▲ 7,000	▲ 13.3%	▲ 600	▲ 1.0%	2,600	4.4	
LGU+ (032640)	14,720	15,090	14,950	▲ 230	▲ 1.6%	▼ 140	▼ 0.9%	700	4.7	
KOSPI	4,214.2	5,584.9	5,487.2	▲ 1,273.1	▲ 30.2%	▼ 97.6	▼ 1.7%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이번 주에도 시장 보다는 충격이 덜 했습니다.**
- 통신 주간 -0.7%, KOSPI -1.7%. YTD 통신 +20.4%, 지수 +30.2%. 지난 주부터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통신이 방어 역할 수행
- 이번 주에도 방어 역할을 수행했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을 위한 특별 관리 품목 23개에 통신비가 포함되면서 금요일에는 지수 대비 하락
- 과거와 달리 인위적인 요금인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일시적인 불안감 유입으로 판단
- 글로벌 정세에 따른 지수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통신의 아웃퍼폼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물론, 지수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통신의 실적 개선과 세제 혜택 및 낮은 밸류에이션 등을 감안하면 주가의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
- AI 산업의 성장 속에 통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DC 영역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연계한 확장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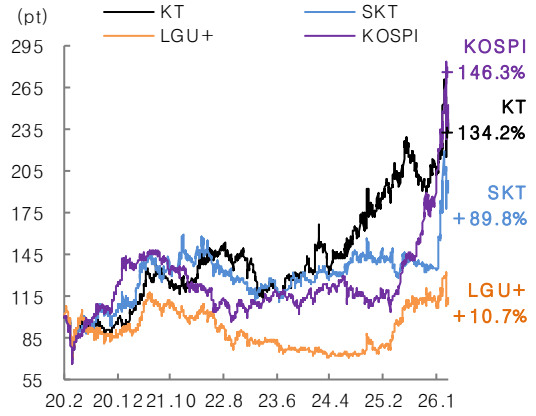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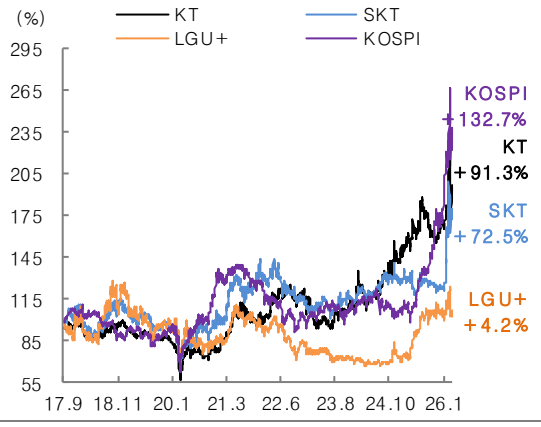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2/6))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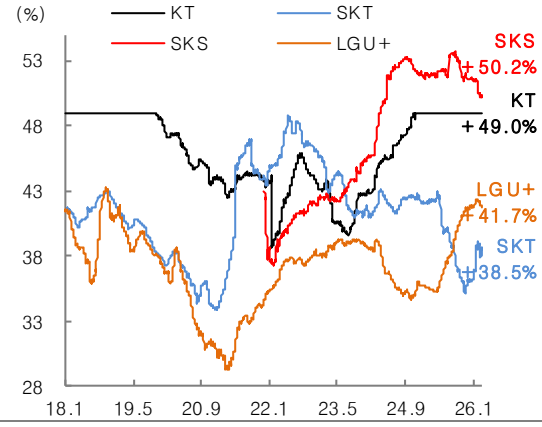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7.9월 선약할인률 상향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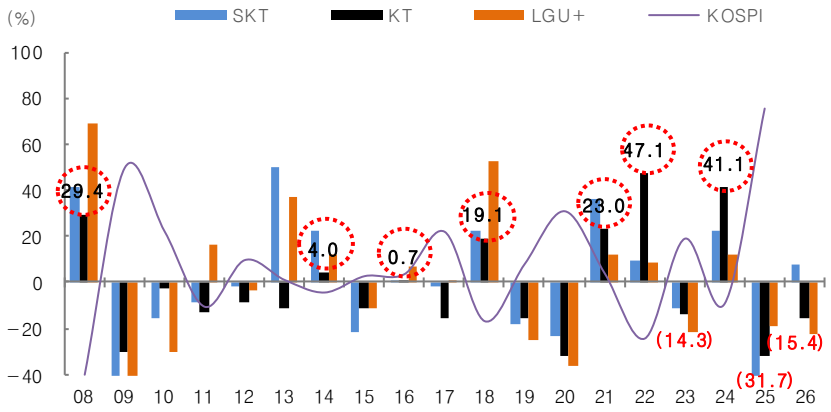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40.2%(+7.7%), KT +13.3%(-13.0%), LGU+ 1.6%(-22.0%)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40.2	13.3	1.6	30.2	7.7	(13.0)	(22.0)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3. 주간 코멘트

2025년 가계 정보통신비, NTT 도코모 하이브리드 5G코어, AI 통화 서비스 격차, KT 기업인터넷 제로트러스트, 3G 종료 논의

산업

2025년 가계 정보통신비

1. 2025년 가구당 월평균 정보통신 지출 16.7만원 기록하며 3년 만에 증가 전환. 통신요금 감소에도 OTT와 생성형 인공지능 구독 서비스 확대 영향
2. 정보통신 지출 항목은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 외 영상기기와 콘텐츠 이용 비용까지 포함된 범주. 디지털 소비 다변화 반영한 통계 구조 속 지출 흐름 변화
3. OTT가 포함된 방송 및 시청각 콘텐츠 지출은 월평균 2만원 수준 기록. 구독자 증가와 서비스 요금 인상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2% 증가
4. 생성형 AI 서비스가 포함된 기타 정보 관련 서비스 지출은 2,286원으로 확대. 전년 대비 약 94.6% 증가, AI 서비스 일상화 영향
5. OTT와 AI 구독료 합산 지출은 월평균 2.2만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 전체 정보통신 지출 내 비중 13.3%로 확대, 신규 디지털 소비 중심 이동 흐름
6. 반면 통신단말과 이동통신 서비스 지출은 각각 2.6만원과 10만원 수준으로 감소. 저가 요금제 확산과 위약금 면제 영향 속 전통 통신비 비중 축소

중립적

- 서비스 지출은 감소했지만, OTT와 AI 이용에 따른 부가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 지출 증가. 과거에는 세부 항목은 구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통신비가 증가하면 이를 요금인하의 근거로 제시했던 사례도 있음

산업

NTT 도코모 하이브리드 5G코어

1. 일본 이동통신사 NTT도코모가 AWS와 협력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상용 5G 코어 네트워크 출시. 온프레미스 NFV 인프라와 AWS 클라우드 결합 구조의 통신 인프라 전환
2. 이번 상용화는 도코모 5G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 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 기존 네트워크 안정성과 클라우드 확장성 결합 기반 운영 유연성 강화 전략
3. AWS 자체 설계 프로세서 그래비톤 기반 5G 코어 인프라 적용.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결합해 네트워크 복원력과 운영 민첩성 향상 목표
4. 도코모는 AWS 에이전틱 AI 기술을 활용해 5G 코어 설계와 배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스트랜드 에이전트와 베드록 에이전트코어 기반 배포 시간 약 80% 단축 성과 확인
5. 운영 단계에서는 기지국부터 코어까지 100만개 이상 네트워크 장치 데이터 실시간 분석 가능. AI 기반 이상 탐지와 복구 계획 자동화로 장애 대응 시간 약 50% 단축
6. 이번 프로젝트는 도코모·NEC·AWS 협력 기반 통신 인프라 혁신 사례 평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AI 결합 5G 코어 운영 모델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

긍정적

- 5G 상용화 7년차를 맞이하여 전세계적으로 5G 효율 향상 작업 진행 중. 5G-SA 및 5G-Advanced 도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N/W 효율화 추진
- 이번 MWC 26에서도 AI-RAN, Edge AI 의 필요성 대두
- 어러한 N/W 효율화는 Agentic AI와 Physical AI 시장 확산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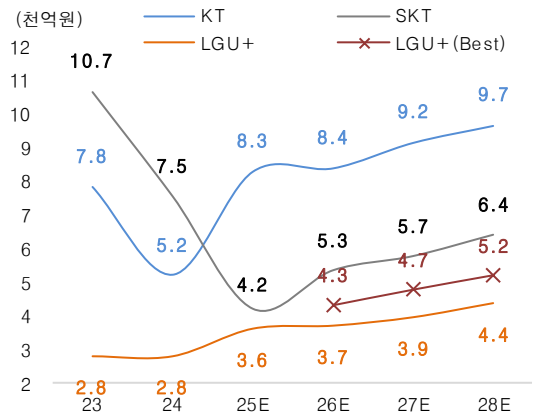
SKT
LGU+

1. LGU+ 인공지능 통화 서비스 익시오의 이용자 이탈률이 SKT 에이닷 대비 높은 수준으로 확인. 최근 6개월 동안 두 서비스 간 이탈률 격차 지속 확대
2. 26.2월 기준 익시오 1개월 이탈률 31.8% 기록. 같은 기간 에이닷 이탈률인 11.5% 대비 약 20.3%p차이

AI 통화 서비스 격차	3. 최근 6개월 동안 익시오 이탈률은 35~53% 범위 유지. 동일 기간 에이닷 이탈률은 13~18%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 구조 4. 비율 기준으로도 익시오 이탈률은 에이닷 대비 최소 2.4배에서 최대 3.7배 수준 격차. 서비스 이용 유지 측면에서 경쟁 서비스 대비 열세 5. 이용자 구성에서도 두 서비스 간 차이 확인. 익시오는 기존 이용자 비중 73.5%와 신규 유입 26.5%로 구성. 반면 에이닷은 기존 이용자 비중 91.4%. 최근 추세 기반 예측에서 익시오 향후 이탈률은 약 39% 수준 전망
중립적	■ AI 산업에서 통신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은 AI DC와 Agentic AI. SKT의 에이닷은 개인 비서(PAA)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해 가는 중. LGU+의 익시오는 아직은 통화 비서 위주의 Vertical 서비스에 가까운 상황. 따라서, 단순히 가입자 이탈률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KT KT 기업인터넷 제로트러스트	1. KT가 기업인터넷 서비스 플렉스라인에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적용한 플렉스라인 ZTNA 출시 발표. 기업 네트워크 접속 환경 보안 강화를 위한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 확대 전략 2. 플렉스라인은 회선과 IP, 장비 및 운영 관제를 통합 제공하는 기업 인터넷 서비스. SD-WAN 기술 적용 기반 네트워크 효율성과 운영 유연성 강화 기능 3. 서비스는 기업 업무 환경과 네트워크 사용 패턴 분석 기반 대역폭 자동 조정. 다양한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와 직접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 4. ZTNA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개념에 기반하여 접속 단계마다 검증 수행. 사용자와 단말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 시점마다 AI 기반 보안 검증 체계 5. 기존 VPN 방식의 지속 신뢰 구조 대신 단말 보안 상태 기반 접근 통제 구조. 안티바이러스와 보안 패치 상태 등 조건 기반 세밀한 정책 적용 6. KT는 양자암호 기반 장비 라인업과 AI메일보안 등 보안 솔루션 연계 확대 계획. 기업 인터넷 인프라에 차세대 보안 기술 결합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긍정적	■ AI 산업을 Layer로 구분해보면, 인프라와 미들웨어/모델 및 서비스로 구분. 통신3사 모두 인프라에서 DC에 강점. 이후 영역에서는 SKT와 LGU+는 각각 에이닷과 익시오라는 Agentic AI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KT는 미들웨어 영역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 모델 준비 ■ KT가 B2B 시장에 강점이 있는 만큼 기업 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하고 AI 산업에서도 미들웨어 영역을 공략하는 것은 좋은 전략
산업 3G 종료 논의	1. 국내 3G 가입자 비중이 전체 회선의 0.64%까지 감소하며 서비스 종료 논의. 도입 이후 처음으로 1% 이하로 하락한 이후 감소세 지속 2. 25.12월 기준 3G 회선 수는 약 37만 회선. 전년 대비 가입자 비중 0.34%p 감소 3. 통신사별로는 SKT 약 15만 회선, KT 약 6.8만여 회선 운영. LGU+는 2G 종료 이후 LTE와 5G 중심 구조로 전환된 상태 4. 정부가 제시한 서비스 종료 기준은 잔존 가입자 비중 1% 미만. 현재 대부분 사업자가 해당 기준 충족 상태로 추정 5. 다만 통신사들은 서비스 종료 절차 공식 착수 단계에는 아직 진입하지 않은 상황. 해킹 사고 여파로 정부와의 논의 지연 6. 통신사들은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 작업을 진행하며 구조 조정 단계 진입. 현재 사용중인 3G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26.12월에 종료, 모두 재할당 결정된 상태. 향후 시장 상황 고려하여 서비스 종료 시점 결정 예정
긍정적	■ 가입자 비중이 적은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는 줄여 가면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다만, 기존 고객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고, 서비스 종료에 따른 OPEX 절감은 유지 서비스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면서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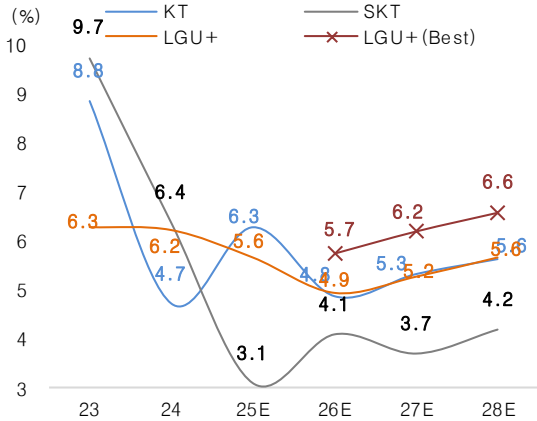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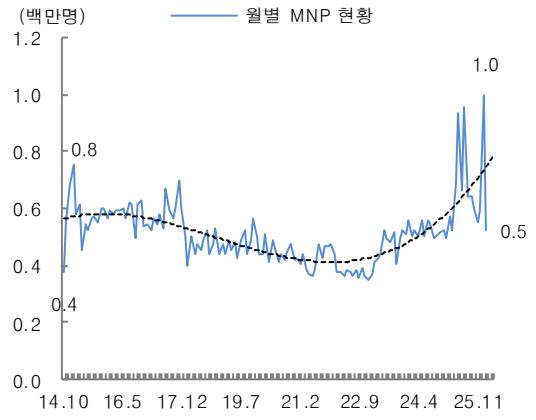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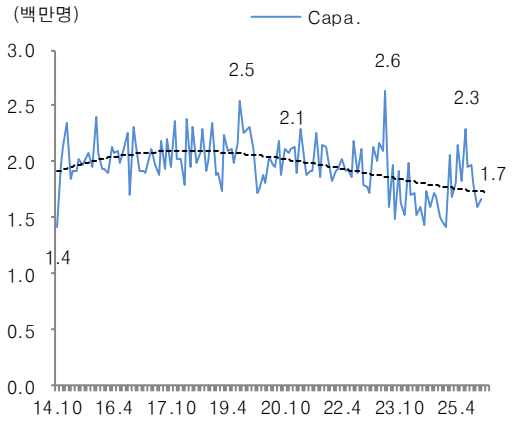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2월) 521천명, -479천명 mom. 25년 평균 656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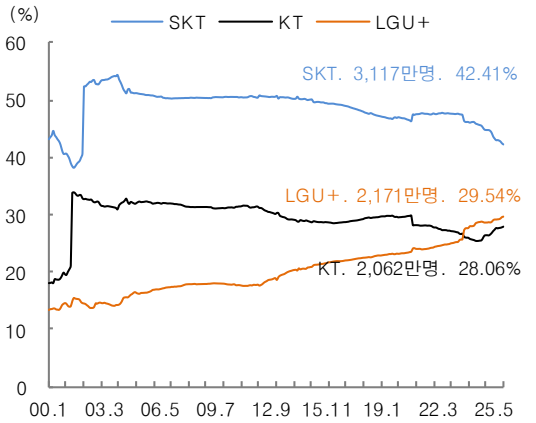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167만명(25.12월). 24년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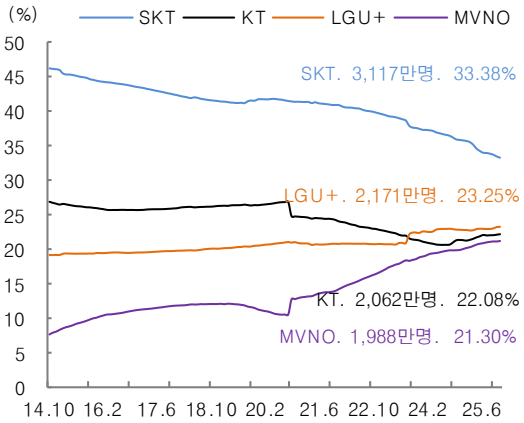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5.12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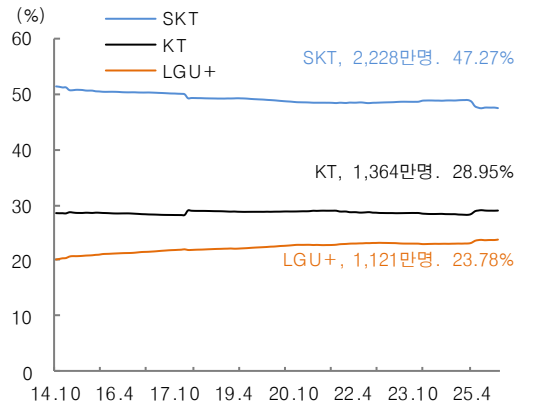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5.12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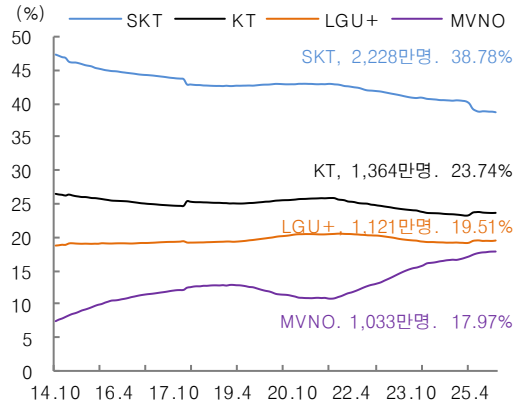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5.12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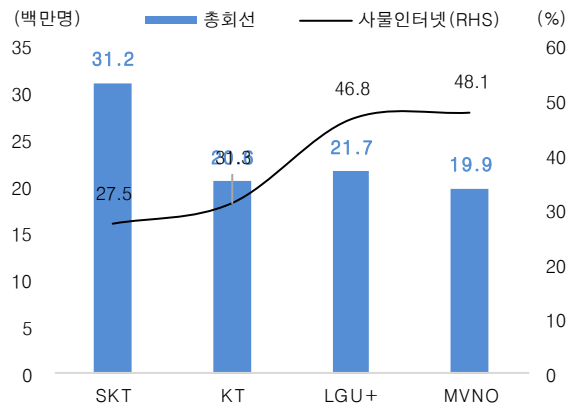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5.12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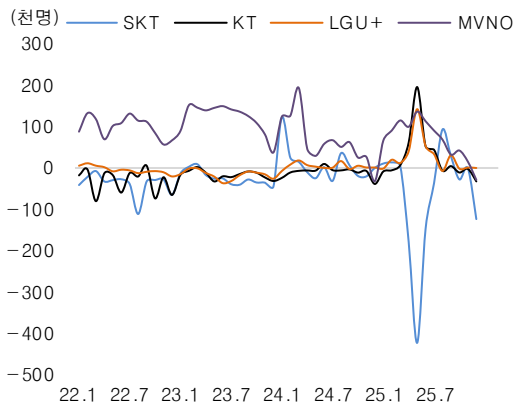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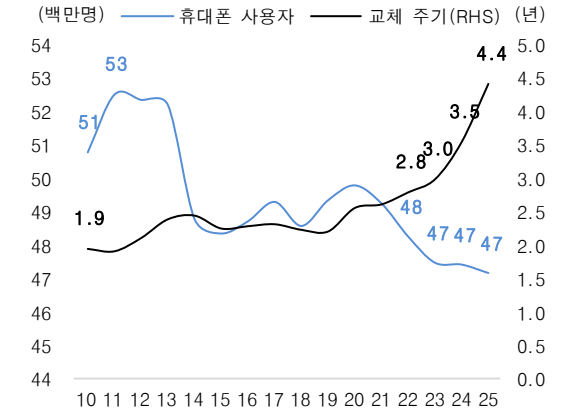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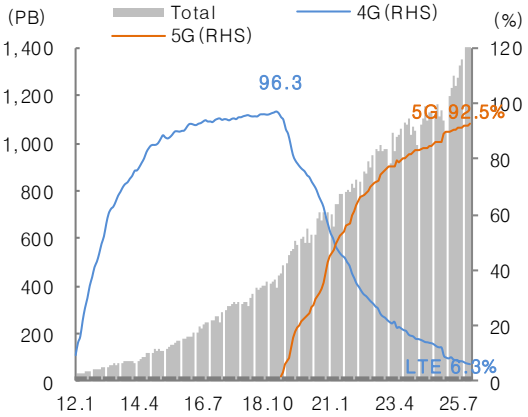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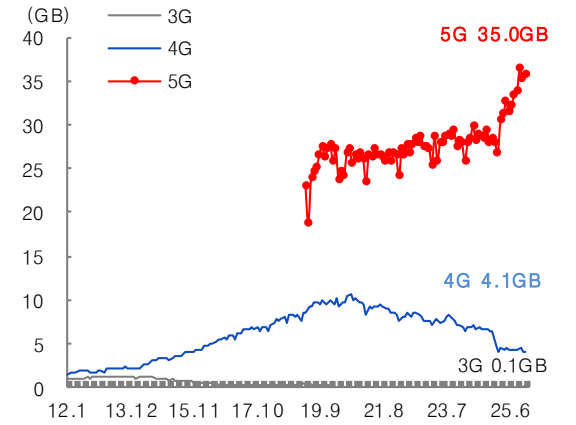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5%(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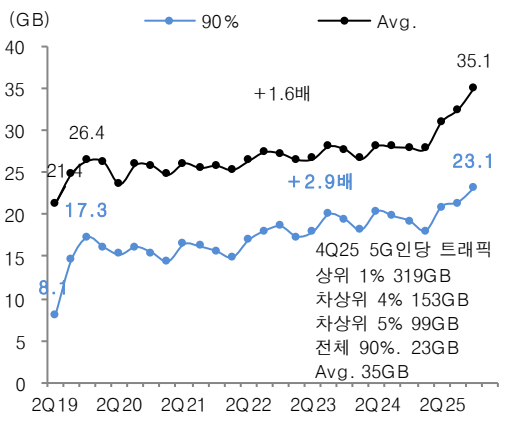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5.0GB(25.12월), +511M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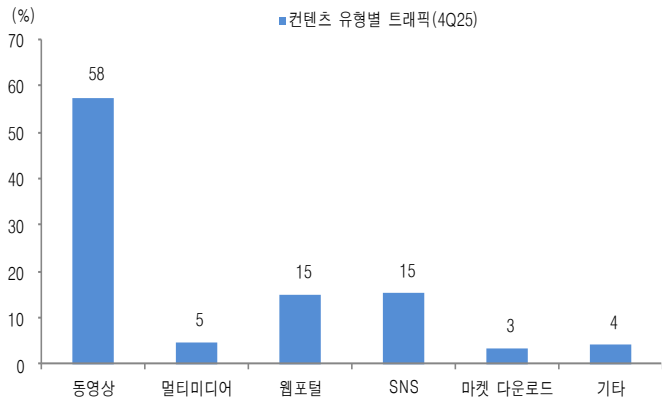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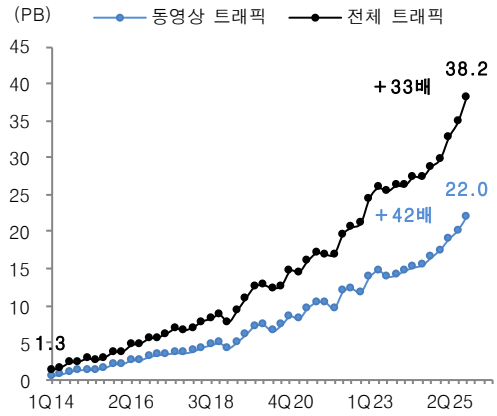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컨텐츠 유형별 트래픽(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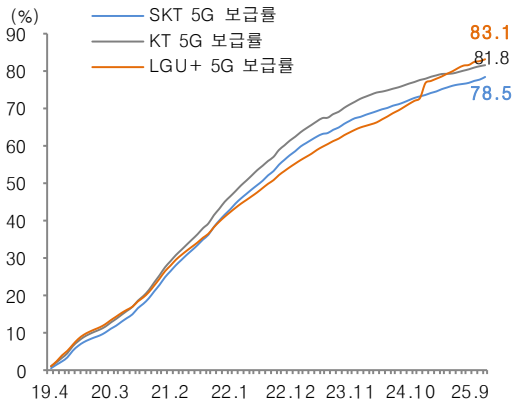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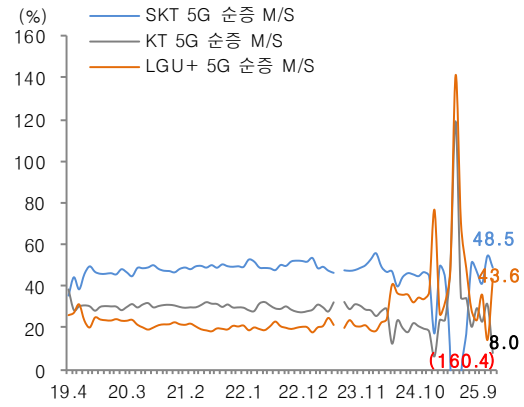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0.5%(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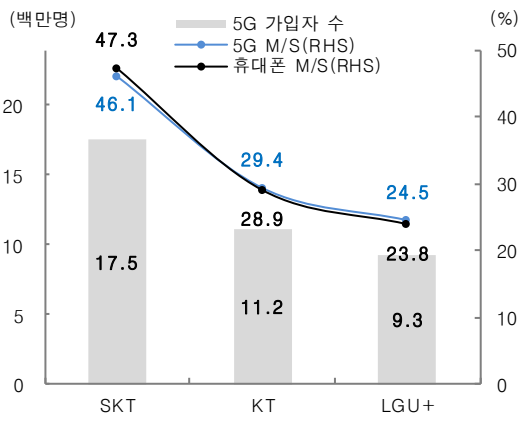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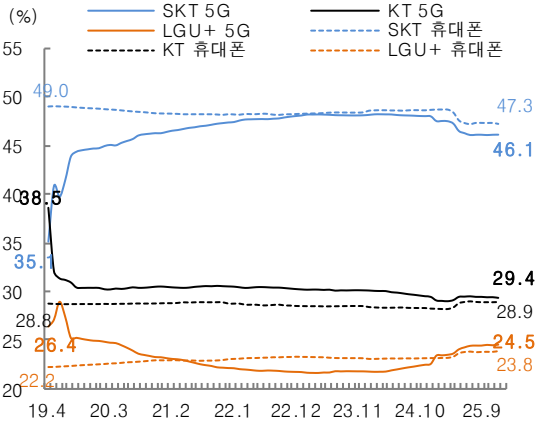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5.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5.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회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